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공동체의 임무 '충고'(마태오 18,15-20 (가))

교황 “선이 승리한다는 희망 보여줘”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미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1821~1846) 탄생 200주년 기념일인 지난 21일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은 김대건 신부를 “영웅적 신앙의 모범적 증인”이라 부르면서 “성인(김대건 신부)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이 미움을 이기기 때문에 선이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기쁜 희망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교황은 아울러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나눔 운동을 아낌 없는 마음으로 지원해주신 한국 교회 공동체 전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백신 나눔 운동은 유홍식 라자로 대주교가 교구장이던 지난해 11월 대전교구가 시작해 올 3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전 교구로 확대됐다.

교황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도 전했다. 교황은 “모든 분들이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상호 존중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를 격려드리며, 한반도에서의 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고 계신 분들 모두가 새로운 다짐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평화의 선한 장인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교황의 메시지는 이날 바티칸시국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열린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미사에서 낭독됐다. 미사는 지난 2일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취임한 유 대주교 주례로 진행됐다. 유 대주교는 “성 김대건 신부님은 25년26일이라는 짧은 지상의 삶을 통해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며 “엄격한 유교적 신분사회에서 인간 존엄과 평등사상,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유 대주교는 교황 방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는 “남북 통선선이 복구됐다가 멈추는 등 남과 북, 북·미 관계가 살얼음을 걷는 상황”이라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북한을 방문하셔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미사는 한국어로 진행됐다.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한국어 미사가 봉헌된 것은 2015년 3월 한국 주교단의 교황청 정기 방문 때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젊은이들의 꼴볼견을 보다 못해 백발의 노인이 그들을 꾸짖다가 망신을 당하거나, 교수가 학생의 잘못을 꾸짖다가 얻어맞았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이쯤 되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간판이 떨어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슬픈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요즘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니, 살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니 하고 들 격론을 벌이기도 하는가 보다. 이러한 격론이 있다는 자체도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어른이 젊은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젊은이들은 충고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회는 건강하지 않을까? 그러나 인간은 충고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충고는 소태처럼 쓰기 때문이다.

어떤 신자가 말을 너무 잘해서 연사로 이곳저곳에서 강연하게 되었다. 그의 말솜씨는 그야말로 은쟁반에 옥구슬이 구르는 듯 하면서도 힘차 많은 사람들이 감명받았다.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았다. 몇 년이 지난 뒤 그를 따라다니던 사람이 내게 말했다. “신부님, 우리 선생님이 이상해졌어요.” “왜요?” “어디가서 강론하고 나면 우선 우리들이 잘하겠다고 말씀드려야 기분이 좋으신가요.” 나는 그때 생각했었다. 그는 계속 박수소리에 속고 있었다.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충고같은 것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교권을 문제 삼기 시작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 말았다.

구원 역사 속의 충고들 원죄는 따



고 했을 것이다. 남들이 듣는데 충고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가서 입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껄일 수도 있기에 혼자서 조용히 충고하라는 것이다.

한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라도 그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고집을 세우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앞에 그의 문제를 가져와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 사람의 잘못을 타일러 주는 문제에 집요하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한 사람의 잘못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끝장을 보려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안을 다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면으로는 한 인간의 존재가 너무도 귀하기에 그를 끝까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다. 부족하기에 충고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내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나는 인간성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포기한 사람이다. 남들이 나를 포기한 사람이라면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매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충고하시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아홉번의 칭찬 뒤에 한번의 충고라 해도 싫어하는 자세였다면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충고하기보다는 충고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되어야 한다.

-최기산 신부-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